

## 加德島의 民間療法

金 承 璨

(釜山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 가덕도의 민간요법

1. 약물요법
  2. 물리요법
  3. 주술요법
    - 1) 적대법
    - 2) 공대법
    - 3) 의타법
    - 4) 전이법
    - 5) 차단법
    - 6) 유사주법
    - 7) 동태복수법
    - 8) 기 타
  4. 침구·한증요법
- 부 록

## 가덕도(加德島)의 민간요법(民間療法)

민간요법은 기충민이 예로부터 일상 생활 속에서 전승해온 질병 치료법으로써 현대에 이르러 과학적 의학에 의해 속신(俗信)이니 미신이니 하여 물리침을 받고 있는 기충문화의 일종이다.

이 민간요법은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기충민 사이에서 거듭해온 의료행위에서 얻은 의료지식인 만큼, 이 민간요법의 자료는 기충민의 지식과 사고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민속자료가 된다.

따라서 가덕도의 민간요법은 부산지방의 기충 문화를 조사·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의료사(醫療史)를 문화적·사회적 측면에서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조사자가 설문지에 의거하여 가덕도의 천성(天城)·대항(大項)·동선(東仙)·항월(項越)에서 1991년 2월 28일부터 1991년 5월 4일까지 조사한 민간요법의 자료를 여기 소개 하되, 자료의 내용 또는 치료의 방법에 따라 약물요법·물리요법·주술요법·침구(鍼灸)한증(汗蒸)요법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 1. 약물요법

약물요법이란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약물 또는 음식물 등을 먹거나 발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법을 말한다.

이 약물요법은 우리의 고유한 치료법에 한방(韓方)의료법이 덧붙여져 그 의료법이 다양해졌을 것으로 추량된다.

- 독사에게 물렸을 때 : ① 썩을 짓이겨 물린 자리에 붙인다. ② 백반을 바른다. ③ 호박꽃을 따다가 붙인다. ④ 비단개구리를 말려 빵아 그 가루를 바른다. ⑤ 담배잎 삶은 물에 담근다.
- 벌에게 쏘였을 때 : ① 고추장을 바른다. ② 이똥을 긁어 바른다.

③ 취순을 날 것으로 먹고 이똥을 끓여 바른다. ④ 순탁주로 문지른다. ⑤ 깨잎을 씹어서 붙인다. ⑥ 호박잎을 짓이겨 붙인다. ⑦ 벌꿀을 바른다.

- 쥐에게 물렸을 때 : 생밤을 씹어서 붙인다.
- 풀썰기에게 쓰였을 때 : ① 이똥을 끓여 바른다 ② 고추장을 바른다. ③ 백반가루를 물에 따서 바른다. ④ 침을 바른다.
- 지네에게 물렸을 때 : ① 고추장을 바른다. ② 생밤을 씹어서 바른다. ③ 마른 쑥잎을 부벼 붙인다. ④ 이똥을 끓여 바른다. ⑤ 지게미를 붙인다.
- 소 등 가축에게 밟혔을 때 : 치자물과 식초를 밀가루에 섞어 반죽을 하여 밟힌 부위에 붙인다.
- 감 먹고 체했을 때 : ① 된장과 소금을 먹는다. ② 소금을 먹고 물을 마신다.
- 돼지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 ① 새우젓을 먹는다. ② 감을 먹는다. ③ 배를 먹는다. ④ 가짓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쇠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 ① 청개구리를 산 채로 삼킨다. ② 풋감 또는 감나무잎을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③ 피문어를 꺾절채 먹는다. ④ 문어를 삶아 먹는다. ⑤ 참기름을 먹는다. ⑥ 배 즙을 먹는다.
- 독이 있는 복어를 먹었을 때 : ① 감자를 갈아 그 즙을 먹는다. ② 가지나무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③ 유자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④ 박하잎과 줄기를 갈아 그 즙을 먹는다. ⑤ 아주까리 기름을 먹는다. ⑥ 쌀을 갈아 먹고 잠을 자지 않는다. ⑦ 아주가리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두부를 먹고 체했을 때 : 긴 담뱃대에 끼어 있는 진을 빼어 먹는다.
- 물을 먹고 체했을 때 : 청개구리를 산 채로 먹는다.
- 개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 ① 탕자 술을 먹는다. ② 탕자와 목화 씨를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 ① 인동초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취 줄기를 쪼어 참기름에 무쳐 먹는다.
- 문어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 ① 인동초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참기름을 먹는다. ③ 낙지회를 먹는다.
- 미역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 ① 생쌀을 씹어 먹는다. ② 참기름을 먹는다.
- 양재물을 먹었을 때 : ① 생감자의 즙을 먹는다. ② 생녹두를 갈아 먹고 토한다. ③ 쌀 뜨물을 먹거나 쌀을 갈아 먹는다. ④ 비눗물을 먹는다.
- 가시에 찔렸을 때 : ① 느릅나무 뿌리를 쪼어서 가시 찔린 곳에 붙인다. ② 오줌에 환부를 담근다.
- 가시를 파내지 못했을 때 : ① 오줌에 환부를 담근다. ② 끓인 간장에 환부를 담근다.
- 타박상으로 인해 어혈이 들었을 때 : ① 달걀 노른자 · 치자물 · 식초를 밀가루에 반죽하여 환부에 붙인다. ② 자고 난 뒤의 침이나 담배 피운 뒤의 침을 바른다.
- 타박으로 인해 뼈가 쏠릴 때 : ① 개머루 열매의 물을 먹고 타박 난 부위에 바른다. ② 떡벌이냉쿨을 쪼어서 타박 난 부위에 바른다. ③ 생지황을 술을 만들어 마시고 찌꺼기를 환부에 붙인다. ④ 술 구지읒을 쪼어서 오줌에 절여서 붙인다.
- 머리가 돌맹이 등에 맞아 터졌을 때 : ① 된장을 바른다. ② 된장에 숯검정가루를 섞어 바른다.
- 손톱이 망치 등에 맞아 빠졌거나 손톱얇이를 하여 손톱이 빠졌을 때 : ① 말린 피문어를 씹어서 붙인다. ② 생참깨를 씹어서 붙이고 그 위에 된장에 절인 콩잎으로 싸서 동여맨다. ③ 손톱이 망치에 맞아 빠졌을 때는 생지황을 쪼어 붙이고, 손톱이 손톱얇이를 하여 빠졌을 때는 된장을 콩잎에 발라 감아 놓거나 참깨를 씹어서 손에 감아 놓는다.

- 불이나 끓는 물에 데었을 때 : ① 민물파래를 데인 부위에 붙인다.  
② 우뚝가사리를 태워 그 재를 바른다. ③ 간장을 바른다. ④ 비눗물을 바른다. ⑤ 소주에 담근다. ⑥ 개뼈를 고아 그 물을 바른다.
- 손발이 뒤틀릴 때 : ① 돼지기름이나 쇠기름을 바른다. ② 자기의 오줌물에 씻는다. ③ 전복 기름을 바른다. ④ 오줌물에 씻고 된장을 바른다.
- 손목이나 발목을 삐었을 때 : ① 치자물을 밀가루에 버무려 붙인다.  
② 달걀·조선 초·치자물을 밀가루에 버무려 환부에 붙인다.
- 새 살이 돋지 않을 때 : 느릅나무의 껍질이나 뿌리를 쪼아서 환부에 붙인다.
- 굳은 살이 심하여 발 뒤축이 갈라 터질 때 : ① 으름덩굴을 삶아 그 따뜻한 물에 환부를 담근다. ② 돼지기름이나 쇠기름을 바른다.  
③ 송진을 바른다. ④ 보리밥을 으깨어 붙인다. ⑤ 맑은 오줌에 환부를 담근다. ⑥ 염소고기를 먹는다.
- 이(齒)가 흔들릴 때 : ① 수양버들 가지를 삶아 그 물을 머금는다.  
② 솔방울과 돌웃(이끼)을 삶아서 그 물을 머금는다.
- 잇몸에 피가 날 때 : ① 소금으로 양치한다. ② 솔방울과 돌웃을 삶아서 그 물을 머금는다. ③ 간장을 머금는다.
- 치통이 있을 때 : ① 아주까리를 구워 아픈 이로 물고 있다. ② 담배 연기를 마신다. ③ 간장을 머금고 있다.
- 생니앓이를 할 때 : ① 찬물을 머금고 있다. ② 식초에 담근 숨을 물고 있다.
- 사랑니가 나면서 아플 때 : 자기 오줌을 머금고 있다.
-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 ① 자기 오줌을 귀에 넣어 따뜻하게 했다가 뺀다.
- 귀에 고름이 날 때 : ① 백반을 넣는다. ② 고양이 오줌을 넣는다.  
③ 영사를 갈아 넣는다. ④ 나락(벼)뿌리를 삶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 김을 썬다.

-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 귀바퀴에 참기름을 바른다.
- 생목이 올라올 때 : ① 식초를 먹는다. ② 탁주를 병에 넣어 봉해서 변소에 놓아 두었다가 먹는다. ③ 박하 잎의 즙을 먹는다.
- 목젖이 내렸을 때 : ① 뱀알을 말려 태워 그 가루를 갈대 구멍을 통해 목 안에 불어 넣는다. ② 소금을 목젖에 넣는다.
- 코가 막힐 때 : ① 소금물을 끓여 식혀서 코 속에 넣는다. ② 설탕국(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처럼 넣어 끓인 국)을 해 먹는다. ③ 파뿌리·밀감·생강을 한데 넣어 달여 그 물을 먹는다.
- 코피가 계속 날 때 : ① 소금물을 코로 들이었다가 뱀어낸다. ② 잔디뿌리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③ 연뿌리를 삶아 먹는다. ④ 쌀을 찜어 그 즙을 코에 넣는다. ⑤ 망개 뿌리나 조뱅이대를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 아구창이 났을 때 : ① 소변 버금 찌꺼기를 끓여 그 김을 아구창에 썬다. ② 소변 버금 찌꺼기를 볶아 그 가루를 아구창 난 데 불어 넣는다. ③ 소금을 미나리에 묻혀 입 주위를 비벼 문지른다.
- 헛바늘이 돋았을 때 : ① 백반을 태워 그 가루를 헛바닥에 바른다. ② 참기름을 끓여 치술에 묻혀 헛바닥을 문지른다. ③ 소금에 절인 두더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④ 소금·벌꿀·고백반을 섞어 끓여 대칼로 찍어 헛바늘 난 곳에 바른다. ⑤ 벌꿀을 헛바늘 난 곳에 바른다.
- 혀에 백태가 낄 때 : ① 미나리 으갠 것에 소금을 섞어 헛바닥을 문지른다. ② 생청을 머리카락에 발라 헛바닥에 넣어 닦아낸다. ③ 고백반을 바른다.
- 가래·기침이 날 때 : ① 토종 벌꿀을 먹는다. ② 무우를 삶아서(또는 구워서) 먹는다. ③ 조청에 생강즙을 섞어 먹는다. ④ 생강즙·무우즙·배즙에 흑설탕을 섞어 먹는다. ⑤ 칩을 갈아 먹는다.

- 감기에 걸렸을 때 : ① 파뿌리 · 콩나물 · 배를 섞어 달여 그 물을 먹는다. ② 쪽파뿌리 · 띠뿌리 · 돌감나무뿌리 · 감초를 함께 달여 그 물을 먹는다. ③ 선떡국을 끓여 땀이 나게 먹는다. ④ 밀감 · 파뿌리 · 생강을 함께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⑤ 생강을 달여 그 물을 먹는다. ⑥ 생강 · 콩나물 · 생엿을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더위를 먹었을 때 : ① 첫눈(雪)의 물을 받아 병에 넣어 두었다가 더위 먹었을 때 그 물에 개진달개꽃을 따다가 넣어 우려서 그 물을 먹는다. ② 나락(벼)에 맺힌 이슬을 받아 먹는다. ③ 콩국을 먹는다.
- 숯불에 중독되었을 때 : 동치미 국물을 먹는다.
- 동상이 났을 때 : ① 해삼을 잘라서 환부에 붙인다. ② 콩 삶은 물에 환부를 담근다. ③ 무우를 썰어서 끓인 물에 환부를 담근다.
- 눈알에 핏기가 생겼을 때 : ① 파리 대가리의 피를 젖에 개어 눈에다 한 방울 넣으면 핏기가 없어진다. ② 소금으로 양치한 다음 그 물로 눈을 씻는다. ③ 젖을 짜서 눈에 넣는다. ④ 상처잇을 오줌에 섞어 찜어 잘 때 눈 위에 붙인다.
- 눈에 삼이 생겼을 때 : 젖을 짜서 넣는다.
- 치질이 생겼을 때 : ① 청개구리를 삶아 먹는다. ② 청개구리를 산 채로 삼킨다. ③ 담배잎을 붙인다.
- 신경통으로 아플 때 : ① 개복숭아 나무의 껍질을 술에 담아 먹는다. ② 녹나무뿌리로 술을 담아 먹는다.
- 토사곽란이 일어날 때 : ① 양귀비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된장을 개어 먹는다.
- 이질에 걸렸을 때 : ① 쪽을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양귀비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③ 달걀에 술검정을 섞어 마신다.
- 설사가 날 때 : ① 양귀비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마른 미역을 뿜아 설탕에 섞어 먹는다. ③ 도토리를 삶아 뚫은 물을 우려내고 죽을 끓여 먹는다. ④ 쪽을 찜어 그 즙을 먹는다. ⑤ 쪽과 육모초를

- 섞어 찜어 그 즙을 먹는다. ⑥ 흰죽을 끓여 먹는다.
- 생안손 앓이를 할 때 : ① 참깨나 계를 씹어서 앓이 부위에 붙인다. ② 된장 · 숯검정 · 비누가루를 섞어 붙인다. ③ 콩잎을 감아 둔다.
  - 수족에 정(긁음)이 솟았을 때 : ① 도꼬마릿대를 삶아 그 물을 바른다. ② 밀가루에 달걀 흰자를 버무려 붙인다. ③ 보리밥 으갠 것에 소금을 버무려 붙인다. ④ 느릅나무 뿌리를 찜어 붙인다.
  - 손바닥에 허물이 벗겨질 때 : 솔구지 뿌리로 문지른다.
  - 채독에 걸렸을 때 : 상처 벌레를 먹는다.
  - 음이 올랐을 때 : ① 호박넝쿨을 삶아 그 물에 씻는다. ② 수은과 황을 갈아서 참기름에 개어 바른다. ③ 솔구지 뿌리와 소금을 찜어 그 즙을 바른다.
  - 옷이 올랐을 때 : ① 오래된 멸치 젓국을 바른다. ② 밤나무의 수액을 바른다. ③ 소주를 바른다. ④ 밤나무 껍질을 삶아 그 물에 씻고 개기름을 바른다. ⑤ 쌀을 씹어서 바른다.
  - 황달병에 걸렸을 때 : ① 인동초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우무를 고아서 먹는다. ③ 보리 단술을 만들어 먹는다. ④ 돌미나리를 삶아 먹는다.
  - 거위 배앓이를 할 때 : ① 담배 진을 먹는다. ② 조선 간장을 먹는다. ③ 탁주에 엿기름을 넣어 식초를 만들어 먹는다. ④ 도배기나물(해초의 일종)을 찌서 그 물을 먹는다. ⑤ 강가의 지네발(수초의 일종)을 뜯어 말려 씹어 먹는다.
  - 사마귀를 뺄 때 : ① 낮거미를 찜어 그 물을 바른다. ② 집없는 달팽이를 찜어 그 물을 바른다. ③ 백반을 바른다.
  -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을 때 : 백반을 바른다.
  - 무좀이 생겼을 때 : ① 가지를 삶아 그 물에 씻는다. ② 소금물에 담근다. ③ 콩을 찜어 삶은 물에 담근다. ④ 도꼬마리 잎을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 어루러기가 생겼을 때 : ① 무화과 나무의 수액을 바른다. ② 피문어를 삶아 먹는다.
- 두드러기가 일어났을 때 : 탕자·목화씨를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 버짐이 생겼을 때 : ① 식초를 바른다. ② 도장밥을 바른다. ③ 산달팽이로 문지른다. ④ 소금물에 씻은 다음 된장을 바른다.
- 쇠버짐이 생겼을 때 : ① 독한 식초를 바른다. ① 된장을 바른다. ③ 들웃(이끼)을 잘라서 나오는 물을 바른다.
- 땀띠가 났을 때 : ① 소금물에 씻는다. ② 가지 삶은 물로 씻는다. ③ 보리쌀 씻은 물로 씻는다. ④ 분가루를 바른다.
- 기미가 끼었을 때 : 양치질한 물을 마신다.
- 단독이 났을 때 : ① 소태나무를 삶아 그 물을 먹고 바른다. ② 뱀술을 먹는다. ③ 돼지고기를 먹는다. ④ 소태나무 기름이나 돼지 기름을 바른다.
- 발찌가 났을 때 : ① 감을 쪄개어 붙인다. ② 마른 지네를 빵아 그 가루에 달걀 노란자를 섞어 참종이에 붙여 바른다. ③ 굴비 껍질을 바른다.
- 볼거리가 났을 때 : ① 뱀 껍질을 붙인다. ② 개떡갈나무 열매와 잎을 쪄어 붙인다. ③ 소태나무의 기름을 바른다. ④ 생청을 바른다.
- 턱거리가 났을 때 : ① 평발을 삶아 먹는다. ② 토끼를 삶아 먹는다. ③ 소태나무의 기름을 바른다.
- 연주창이 생겼을 때 : ① 능구렁이 피에 밀가루를 섞어 찌 먹는다. ② 느릅나무 뿌리를 쪄어 붙인다.
- 태독이 생겼을 때 : ① 달걀 기름을 바른다. ② 벼의 등겨의 기름을 바른다.
- 담이 생겼을 때 : ① 하늘타리를 막걸리에 담가 두었다가 먹는다. ② 뱀술을 먹는다. ③ 찹쌀밥에 참기름을 넣어 비비어 먹고 담 생긴 부위에 붙인다.

- 증풍에 입이 돌아갈 때 : ① 까치 대가리를 삶은 물을 입 주위에 바른다.
- 어지럼증이 났을 때 : ① 보리밥을 먹는다. ② 큰물고기 내장에 소화되지 않고 들어 있는 작은 물고기를 끄집어 내어 구워 먹는다. ③ 인삼과 대추를 달여 먹는다. ④ 검은 콩을 삶아 먹는다. ⑤ 돼지 발을 삶아 먹는다.
- 두풍이 생겼을 때 : ① 동동주를 먹는다. ② 도꼬마리를 삶아 그 물에 머리를 감는다. ③ 도장밥을 바른다. ④ 무화과잎의 흰즙을 바른다.
- 간질이 생겼을 때 : 부엉이 눈을 삶아 먹는다.
- 속병을 앓을 때 : 양귀비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요통이 있을 때 : ① 하늘타리 물과 치자물을 탁주에 섞어 먹는다. ② 하늘수박을 탁주에 담가 따뜻하게 하여 그 물을 먹는다.
- 복통이 있을 때 : 조선 간장을 먹는다.
- 소갈증이 생겼을 때 : ① 조와 대잎을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제비초(꿀풀)를 달여 먹는다. ③ 대잎과 참박 속을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④ 찬 물에 간장을 타서 먹는다.
- 도한(盜汗)이 날 때 : ① 삼계탕을 먹는다. ② 염소고기를 먹는다. ③ 소뼈를 고아 먹는다.
- 힘줄이 상했을 때 : 똥모래냉쿨을 찢어 바른다.
- 불알이 아플 때 : ① 생더덕의 즙을 먹는다. 단 부었을 때는 오동잎을 찢어서 붙인다. ② 더덕을 삶아 먹는다. ③ 도라지 삶은 물을 먹는다.
- 하문(玉門)이 가려울 때나 붓고 아플 때 : 소금물로 씻는다.
- 어린애가 침을 흘릴 때 : ① 뱀을 구워 먹인다. ② 돼지꼬리를 삶아 먹인다. ③ 구등신을 구워 먹인다. ④ 메뚜기를 구워 먹인다.
- 어린애가 푸른 똥을 쌀 때 : 뽕나무 벌레를 말려 갈아서 먹인다.

- 어린애가 밤에 오줌을 쌀 때 : 미삼과 찹쌀을 삶아 먹인다.
- 어린애가 경기를 할 때 : ① 우엉뿌리를 갈아 그 즙을 먹인다. ② 머리의 숨골·양미간 사이·인중에 식초를 바른다.
- 어린애 배에 자래가 생겨 거품똥을 쌀 때 : ① 들돈냉이 즙을 먹인다. ② 수채의 지렁이를 삶아 먹인다.
- 흥진을 할 때 : ① 영사를 갈아 먹인다. ② 평발이나 토끼를 삶아 먹인다. ③ 댓잎·박속·파란 좁쌀을 삶아 그 물을 차게 하여 조금씩 먹인다.
- 여자가 갑자기 하혈할 때 : ① 얼음으로 아랫배를 찜질하고 육모초를 삶아서 먹는다. ② 백도라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③ 나락뿌리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임신 중 소변이 자주 나오거나 피오줌이 나올 때 : 고새나무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유산을 시킬 때 : 하늘타리 뿌리를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 난산일 때 : 말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다.
- 태가 나오지 않을 때 : 아주까리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산후에 나쁜 피가 배에 남아 아플 때 : ① 탁주를 먹는다. ② 육모초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③ 백도라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산후에 코피가 날 때 : 마른 쑥을 찢어 코를 막는다.
- 산후에 하혈이 멎지 않을 때 : 육모초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산후 바람을 받아 손발이 저릴 때 : ① 미역국을 끓여 그 김을 얼굴에 써며 먹는다. ② 누른 호박을 삶아 먹는다. ③ 염소탕을 먹는다. ④ 삼계탕을 먹는다.
- 산후에 붓고 숨이 찰 때 : ① 검은 콩·미팥·육모초를 함께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호박을 삶아 먹는다. ③ 옥수수의 수염을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산후에 피오줌이 나올 때 : ① 고구마를 삶아 먹는다. ② 연뿌리

즙을 먹는다.

- 산후에 오줌이 안 나올 때 : ① 고수풀대(‘고새’라 하기도 함)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파뿌리를 삶아 그 물을 먹거나 찌서 배에 붙인다.
- 산후에 젖이 잘 나지 않을 때 : ① 돼지발을 삶아 먹는다. ② 소뼈를 고아 먹는다.
- 산후 변비에 걸렸을 때 : 아주까리 기름을 먹는다.
- 젖꼭지의 둘레가 헐 때 : ① 가지꼭지를 태워 참기름에 으깨어 바른다. ② 삼가루를 바른다. ③ 달걀을 볶아 나오는 기름을 바른다. ④ 침을 바른다.
- 젖몸살을 할 때 : 따뜻한 방에서 미역국을 먹는다.
- 변비가 생겼을 때 : ① 쑥물을 먹는다. ② 아주까리 기름을 먹는다.
- 탈모증이 생겼을 때 : 벼쪽정이를 사기그릇에 담아 불에 없어도되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 2. 물리요법

물리요법이란 신체의 한 부위에 외부로부터 손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의료법을 말한다.

이 물리요법은 주술요법과 혼동하기 쉬운 치료법이다.

- 독사에게 물렸을 때 : 입으로 독을 빨아 낸다.
- 감 먹고 체했을 때 : 배를 주물러 체한 것을 내린다.
- 개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 먹은 것을 토해 내고 배를 주물러 내린다.
- 두부를 먹고 체했을 때 : 배를 주물러 체한 것을 내린다.
-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 ① 먹은 것을 토해내고 배를 주물러 내

린다. ② 등을 두드리거나 배를 주무르고 엄지손가락을 따피, 급체일 때는 엄지발가락을 탄다.

- 미역을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 배를 주무르고 손끝을 탄다.
- 가시에 찔렸을 때 : 바늘로 가시를 파낸다.
- 못에 찔렸을 때 : ① 찔린 부위를 망치로 두드려 피를 빼내고 석유를 발라 태운다. ③ 돌을 불에 대워 환부에 문지른다.
- 타박상으로 인해 어혈이 들었을 때 : ① 환부에 달걀을 굴린다. ② 찬물로 주무른다.
- 손발이 뒤틀을 때 : 쇠죽 술의 여물로 씻는다.
-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 ① 요강에 끓인 물을 넣고 귀를 대어 뜨거운 김이 들어가 물과 함께 나오게 한다. ② 돌맹이를 따뜻하게 하여 귀에 댄다.
-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 ① 귀 속에 전등불을 비춘다. ② 귀에 참기름을 넣고 귀를 기울여 벌레가 미끄러져 나오게 한다.
- 딸국질이 계속 날 때 : ① 찬물을 숨을 쉬지 않고 세 모금 마신다. ② 숨을 쉬지 않고 침을 세번 삼킨다.
- 코피가 계속 날 때 : 코로 찬물을 들이 마신다.
- 숯불에 중독되어 머리가 아플 때 : 찬 물에 얼굴을 씻는다.
- 동상이 났을 때 : 자루에 콩을 넣고 거기에 동상 난 부위를 대어 문지른다.
- 팔·다리에 쥐가 날 때 : ① 지압을 한다. ② 쥐난 부위를 주무른다. ③ 쥐가 난 반대쪽 코끝에 침을 바른다.
-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을 때 : 바늘로 파낸다.
- 땀띠가 났을 때 : ① 찬물에 목욕한다. ② 찬 바람을 쐬다.
- 혹이 생겼을 때 : 아카시아 가시를 혹에 꽂아 둔다.
- 어린애가 푸른 똥을 쌀 때 : 집게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고 소금을 발라 준다.

- 어린애가 경기를 하거나 배에 자래가 생겨 거품똥을 쌀 때 :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서 피를 낸다.
- 젖몸살을 할 때 : 젖을 짜 내고 젖무덤을 주무른다.
- 눈가에 다래끼가 났을 때 : 엄지발가락에 실을 감아 놓는다.
- 담이 결릴 때 : 담 결린 부위를 담벽에 대고 문지른다.
- 증풍으로 입이 돌아갈 때 : 대추나무로 갈고리를 만들어 안 돌아간 쪽으로 당긴다.
- 해산시 역산할 때 : 하문에 나온 아기발을 바늘로 살짝 찔러 발이 들어가도록 한다.
- 아기를 낳고 태가 나오지 않을 때 : ① 호미를 문지방에 걸어놓고 아기를 낳은 여자가 엉덩이를 마당쪽으로 향하고 걸어 놓은 호미를 힘껏 잡아 당긴다. ② 산부를 앉혀 손가락을 입에 넣어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이 산부의 뒤에서 배를 훑어내린다. ③ 달비를 목구멍에 넣어 구역질을 나게 하고 무릎으로 배를 누르게 한다. ④ 옷고름을 입에 물고 배를 훑어내린다.

### 3. 주술요법

주술요법이란 질병의 발생이 역신(疫神)의 인체내 침범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역신의 퇴치에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질병을 고치는 치료법을 말한다.

이 주술요법에는 적대법(敵對法)·공대법(恭待法)·의타법(依他法)·전이법(轉移法)·차단법(遮斷法)·유사주법(類似咒法)·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 등이 있다.

#### 1) 적대법

적대법은 질병을 일으킨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 역신을 폭력을 써서

구타하거나 불 따위로 놀라게 하고 위협하거나 또는 칼이나 몽둥이로 피나게 상처를 주거나 끈으로 묶어 역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몸에서부터 달아나게 하는 방법이다.

- 두드러기가 일어났을 때 : ① 환자에게 검은 옷을 입히고 변소 지붕의 썩은 짚을 빼어와 불을 붙여 두드러기 난 부위를 쓸면서 “두드러기 쓸자. 노루고기 쓸자.”하면 없어진다. ② 남의 집 변소 지붕의 짚을 몰래 빼어와 태우는 불에 몽당빋자루를 찍어 그 빋자루를 두드러기 난 부위를 쓸면서 “중놈이 고기 먹는가? 두드러기 쓸자.”하면 없어진다.
- 토사곽란이 일어날 때 : ① 입에 칼을 물리고 칼 위로 물을 부어 먹인다. ② 배꼽을 중지로 누르고 왼쪽으로 일곱번 오른쪽으로 일곱번 돈 다음 지푸라기를 한 꺼풀 벗겨 환자의 왼손바닥을 비비고 그 지푸라기를 왼팔에 끼고 자게 한다.
- 눈에 삼이 생겼을 때 : ① 해돋기 직전에 동쪽으로 향한 가시나무의 가시를 따서 눈을 향해 세번 돌리면서 “내 삼 가져가라” 축원한 다음 가시를 다시 따낸 자리에 거꾸로 꽂아 둔다. ② 삼은 못을 잘못 박아 생긴 것이므로 박은 못 주위에 동그라미를 치고는 그 못을 빼어 키에 맞추어 다시 박는다.
- 눈가에 다래끼가 났을 때 : ① 다래끼가 난 반대쪽의 옷섭에 실을 감아 둔다. ② “고추가 다리를 내지, 눈이 다리를 내는가”하면서 어린애의 자지(양기가 충만한 자리)에 눈을 비빈다.
- 간질병이 생겼을 때 : ① 벼락 맞은 나무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② 사람이 목 매어 죽은 나무 가지를 끊어 와 삶아 그 물을 먹는다. ③ 사람이 목 매어 죽은 끈을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 속병을 앓을 때 : 기왓장을 구워 형겔에 싸서 가슴에 안는다.
-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을 때 : 복어(명태)의 이빨을 지닌다.

- 화병이 생겼을 때 : 참숯을 불로 구워 물에 담그면 물이 우러나는데 그 물을 먹는다.
- 젓몸살을 할 때 : “××대아! 친정 어머니(또는 친정 아버지)가 죽었다고 부고가 왔다.”하고 거짓으로 말하면, 젓몸살하던 여자가 깜작 놀라 젓몸살을 안하게 된다.
- 치질이 생겼을 때 : 검정 고무신을 불에 대어 뜨겁게 한 다음 이를 향문에 댄다.
- 아기를 순산하게 할 때 : 남편이 묵은 묘(오래된 묘) 등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방법을 고묘법(顯墓法)이라 하기도 함).
- 총치로 아플 때 : 그름밤에 오래된 묘의 두상 부분에 가서 세번 범살(물구나무 서서 넘기)을 하고 왔던 길로 돌아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오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오면 낫는다. (고묘법에 들어감)
- 학질에 걸렸을 때 : 여자가 학질에 걸렸을 때 학질에 걸린 여자에게 샷샷을 썩워 앞세워 걷게 하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 가면서 다같이 “남의 머느리 낮에는 못 놀고 밤으로 놀아보세”하면, 또 함께 따라가던 사람이 “찌구야(쫓아 없애자는 뜻)”한다. 이때 마을 사람이 대야에 물을 떠와 환자 몰래 갑자기 환자의 얼굴에 부으면 놀라 낫는다.
- 객귀가 들었을 때 : 경환자는 문지방 한복판에 눕혀놓고 팔 세 날을 입에 넣은 뒤 칼을 입 위에 비스듬이 세워 그 칼에 바가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헛세! 걸귀걸신을 물린다. 성주·조왕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질대장군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좌청룡 우백호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동네방네 제왕님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이골 산신령님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앞도당산 천왕대신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뒷도당산 주신 할배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따라 들어온 걸귀걸신을 물린다.” 하고서는 칼을 들어 마당의 대문쪽으로 향하여 던진다. 그때 칼끝이 밖으로 향하면 객귀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칼 떨어진 곳에 가서 땅에 十字를 긋고



칼을 쫓은 다음 바가지를 칼 위에 덮어 썬다. 그리고 환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와서 한숨 잠재우면 낮게 된다. 만일 칼끝이 두번 던져 밖을 향하지 않을 때는 객귀가 깊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환자를 마루에 앉혀 놓은 다음 물밥을 담은 바가지와 칼을 들고 와서 “몇살 목은 여자가 오늘 운수가 나빠, 음식에 따라 들고 손길에 따라 들고 발길에 따라 들어온 오신걸귀를 물리니 앉아서도 거역 말고 서서도 거역말고 쪽박 밥에다가 한 대접 물에 안 나갈 것 같으면, 업나무에 은장도 드는 칼에 대동강 물에 띄어 직인다(죽인다).” 하고는 칼을 던진 뒤(칼이 밖을 향할 때까지 반복)칼이 밖을 향해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에 十字를 긋고 칼을 쫓은 다음 바깥쪽을 향해 물밥을 버리고 바가지를 칼 위에 덮어 썬다. 그리고 짚단에 불을 붙여 환자에 두어 바퀴 두른 뒤 불붙은 짚단으로 환자의 등을 치면서 “헛세!” 하고는 환자를 방으로 데리고 와서는 꺼꾸로 눕히고 (발이 문지방쪽으로 오도록 눕히고) 환자를 잠재우면 곧 낮게 된다.

- 독사에게 물렸을 때 : 돼지고기를 물린 자리에 붙인다.(돼지가 독사를 잡아 먹기 때문)
- 팔이나 발에 쥐가 일어났을 때 : 입에 손을 대고 ‘야옹’하고 고양이 소리를 내면 낫는다(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기 때문)
- 지네에게 물렸을 때 : 닭으로 하여금 물린 부위를 쪼게 한다.(닭이 지네를 잡아 먹기 때문)
- 쥐에게 물렸을 때 : 고양이 털을 잘라서 태워 기름에 개어 물린 부위에 바른다(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기 때문)

## 2) 공대법

공대법은 질병을 일으킨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 역신에게 공손하게 복종하고 음식물을 대접하여 역신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역신이 환자로 부터 물러나 질병이 낫도록 하는 방법이다.

- **난산일 때** : 산과 할매가 찬물을 손없는 곳에 떠내다 놓고 제왕님께 순산할 수 있도록 빈다.
- **천연두에 걸렸을 때** : ① 마마가 쓰러질 때 버드나무로 작은 말을 만들어 짚으로 덮고 그 속에 돈과 음식을 넣어 손없는 방향의 세 갈래 이상의 길에 가서 버리거나 밭가의 산(生)나무에 매달아 둔다. ② 짚으로 말을 만들고 거기에 부지깽이를 꿸고 돈과 떡을 종이로 싸서 말 위에 얹은 다음 마을 밖으로 나가 마마가 곱게 끝날 수 있도록 손님(천연두의 귀신)에게 빌고 버린다. ③ 마마(강남대 한국 손님)를 하면 주인이 목욕재계를 하고 말(버드나무를 곱혀 밭을 네 개 만들어 짚을 감아 말 형상을 만듦)을 두 마리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제물을 차려 빈 다음, 섬을 네 개를 만들어 두 개에는 돈, 두 개에는 음식을 넣어 두 말에 각각 음식섬·돈섬을 하나씩 싣고 남자 마부에게 돈을 주고(품삯을 주고) 말을 끌고 나가게 한다. 이때 주인이 마부를 보고 “마부야!” “예” “말 몰아라.”하면 마부가 말을 향해 “이랴!”하고 두 말을 모는 시늉을 하여 동네 밖으로 가지고 나가 동네를 향해 보게 세워 둔다. 그러면 이삼 일 안에 병이 낫게 된다.
- **변소에 빠졌을 때** : 변소에 빠진 사흘 안에 밀가루로 떡을 변소에 빠진 사람의 나이 수대로 만들어 변소 앞에서 몇 개 먹고 나머지는 변소에 넣는다.
- **산후에 젖이 잘 나지 않을 때** : 새벽에 남들이 물 길기 전에 샘에 가되, 뒷병을 왼새끼로 매어 양쪽 어깨에 걸고 가서 “옥녀 각시”라 세번 부르고, “애기 밥 타러 왔다.”하고 또 세번 말하고 샘물을 길어와 먹기를 7일간 하면 젖이 많이 난다.
- **눈에 삼이 생겼을 때** : 해 뜰기 전에 물을 장독 위에 떠놓고 장독 앞에서 “해돋아 일월님네, 달 솟아 월광님네 ×××가 삼 팔러

왔습니다.”하고는 왔던 길과는 달리 다른 길로 돌아보지 않고 방안 안에 들어간다.

### 3) 의타법

의타법이란 질병을 일으킨 역신을 퇴치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힘을 빌어 역신을 쫓아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부적(符籙)의 힘·역신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의 힘·역신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약물·빛깔·소리·냄새·맛·촉감 등의 사용이 해당된다.

- 악귀를 퇴치한 때 : 입춘날 蛇字를 거꾸로 써서 대문에 붙인다.
- 가래뚝이 섰을 때 : 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창호지에 거꾸로 써서 환부에 붙인다. ② 자기의 이름을 창호지에 거꾸로 써서 환부에 붙인다.
- 독사에게 물렸을 때 : 침을 놓아 독을 뺀 뒤 약쭉과 소금을 섞어 찜어 물린 부위에 붙인다.
- 감 먹고 체했을 때 : 소금을 먹는다.
- 두부를 먹고 체했을 때 : 소금을 먹는다.
- 생목이 올라올 때 : 소금을 문질러 털어 먹는다.
- 어린이가 밤에 오줌을 쌀 때 : 키를 덮어 씌어 옆집에 소금을 얻으로 보낸다.
- 어린이가 경기를 할 때 : 소금을 손에다가 문지르거나 손에 소금 주머니를 실로 묶어 둔다.
- 손바닥에 허물이 벗겨질 때 : 마늘을 찢어 바른다.
-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을 때 : 마늘을 찢어 티눈 위에 붙인다.
- 어루러기가 생겼을 때 : 마늘즙으로 문지른다.
- 쇠버짐이 생겼을 때 : 마늘을 찢어 그 즙을 쇠버짐에 바른다.
- 산후에 코피가 날때 : 마늘을 찢어 발뒤꿈치에 붙인다.

- 타박으로 인해 뼈가 썩실 때 : 똥물을 먹는다.
- 채독에 걸렸을 때 : 제비 똥을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옴이 올랐을 때 : 사람의 똥을 바른다.
- 옷이 올랐을 때 : 똥이나 오줌을 바른다.
- 거위배앓이를 할 때 : 쇠오줌을 먹는다.
- 불알이 아플 때 : 돼지똥을 구워서 담구어 놓은 물을 먹는다.
- 버짐이 생겼을 때 : 입술에 난 버짐을 없앨 때는 도랑을 건너서 똥을 눈 다음 그 똥을 버짐 난 부위에 바르고 다시 도랑을 건너와 씻는다.
- 학질에 걸렸을 때 : 변소에 한쪽 발을 담그면 낫는다.
- 호열자가 유행할 때 : 이웃사람이 똥을 한 바가지 퍼서 지붕에 끼 없으면 침범하지 못한다.
- 지네에게 물렸을 때 : ① 조그마한 게를 잡아 찢어서 물린 부위에 붙인다. ② 찌은 밥을 씹어서 바른다.
- 수족에 정이 솟았을 때 : ① 민물게를 찢어 붙인다. ② 왕거미를 잡아 죽여 붙인다.
- 단독이 났을 때 : 돼지 창자로 단독난 부위를 문지른다.
- 발찌가 났을 때 : 돼지 쓸개를 터뜨려 그 액을 바른다.
- 볼거리가 났을 때 : 돼지 피를 창호지에 문혀 붙인다.
- 볼거리나 턱거리가 났을 때 : 여자의 월경대(어린이의 경우 어머니 것)를 환부에 눌러 매어 둔다.
- 기미가 끼었을 때 : 남편이 신고 다닌 버선의 목으로 기미 낀 태를 문지른다.
- 간질이 생겼을 때 : 고양이의 태나 어린이의 태를 생으로 먹는다.
- 설사가 날 때 : 술에다가 술검정을 타서 먹는다.
- 더위를 먹었을 때 : ① 오이에 빨간 흙을 발리 구워서 그 물을 짜서 먹는다. ② 첫 눈(雪)의 물을 받아 병에 넣어 두었다가 더위 먹었을 때 그 물에 개진달래꽃을 따다가 넣어 우려서 그 붉은 물을 먹는다.

- 난산일 때 : 은가락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태가 나오지 않을 때 : 은가락지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버짐이 생겼을 때 : 5월 단오날 아카시아의 흰 꽃을 따서 찐과 버무려 나이 수 만큼 떡을 만들어 먹는다.
- 두드러기가 일어났을 때 : 검은 옷을 입고 마른 피문어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 치질이 생겼을 때 : 긴 담뱃대의 한 부분을 잘라 태워 그 연기를 환부에 쐬다.
- 똥독이 올랐을 때 : ① 등겨를 태워 그 연기를 쐬다. ② 벼 쪽정이를 태워 그 연기를 쐬다. ③ 쪽과 껌질을 태워 그 연기를 쐬다.
- 음이 올랐을 때 : 수은과 약쑥을 태워 그 연기를 쐬다.
- 무좀이 생겼을 때 : 약쑥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비맏고 마른 쇠똥을 얹어 그 연기를 쐬다.
- 호열자가 유행할 때 : 온 식구가 대청 마룻바닥에 바가지를 얹어 놓고 소리나게 문지른다.
- 눈에 삼이 생겼을 때 : ① 해 돋을 때 환자를 해 돋는 쪽으로 향해 서게 하고 팔(붉은 팔)을 가져와 환자의 나이 수대로 눈 위에서 떨어뜨리며, “삼 내리자 삼 내리자”라고 말한다. ② 해가 돋을 때 손에 팔을 쥐고 “햇님요 내 눈의 삼을 내려 주이소.”하면서 이름과 나이를 함께 말하며 눈 주위를 문지른다. ③ 바늘에 팔을 꿰어 눈동자 위에 굴린 다음 그렇게 한 팔 7알을 물에 넣는다.

#### 4) 전이법

전이법이란 질병을 일으킨 병마(病魔)를 환자로 부터 다른 물체로 전이시켜 질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다.

- 쇠버짐이 생겼을 때 : 된장을 환부에 바르고 소로 하여금 핥게 한다.
- 사마귀를 땔 때 : ① 가지를 베어 먹고 그 베어 먹었던 부분으로

사마귀를 문지른 다음 그 가지를 찬장 밑에 두면 그 가지가 썩을 때 사마귀가 떨어진다. ② 제일 큰 사마귀나 제일 먼저 돌아난 사마귀를 조금 떼어 돌 위에 얹어 놓은 다음 가지로 문지른다. ③ 어린 가지의 속으로 사마귀를 문지르면서 “내 사마귀 네 가져가라”라고 말한 다음 그 가지를 땅(들판)에 묻는다.

- 어린이가 밤에 대변을 자주 할 때 : 어머니가 어린이의 저고리 앞섶을 실로 묶고 닭집 앞에 가서 아기의 궁둥이를 두드리면서 “닭이 밤똥 누지, 사람이 밤똥 누나?” 하면 된다.
- 요통이 있을 때 : 하늘타리를 탁주에 담귀 그 물을 마시고, 돌담에 허리를 문지르면서 “돌담이 허리가 아프지, 사람이 허리가 아프냐?” 라고 하면 낫는다.
- 눈에 다래끼가 났을 때 : 다래끼 난 눈의 눈썹을 몇개 뽑아 세 갈래 길에 가지고 가서 돌 두 개를 주워 뽑은 눈썹을 가운데 넣고 포개어 두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로 차서 쫓는다.

### 5) 차단법

차단법이란 질병의 유행(질병을 일으키는 역신의 침범)을 막기 위해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단법은 역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원세끼로 만든 금줄을 쳐서 막는다.

- **염병 예방** : 정월 보름날 그 해의 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네 입구의 길가에 금줄을 친다.
- **천연두 예방** : 이월 초하룻날, 나이 많고 정결한 노인이 짚으로 작은 말 형상을 만들어 막대기로 말의 엉덩이 부위를 치는 시늉을 하며 집 밖으로 몰고 나가 길가에 버린다.
- **중풍 예방** : 선달 그믐 아침에 달걀을 깨끗한 오줌에 담궜다가 저녁에 꼬집에 내어 삶아 먹는다

- 부스럼 예방 : 선달 그름에 생 무우를 먹거나 구운 무우를 먹어 부스럼을 예방한다.
- 치통 예방 : 선달 그름에 생밤을 깨물어 먹으면 치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 6) 유사주법

유사주법이란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는 유사법칙에 기초한 유사연상(類似聯想)의 사고에서 나온 주법의 질병 치료법을 말한다.

- 산후에 젖이 잘 나지 않을 때 : ① 산모가 아기를 낳은 지 14일째 되는 날 새벽에 왼새끼를 꼬아 한 줄의 두 끝에 각각 뒷병의 모가지를 묶어 양 어깨에 걸고 우물에 가서 물을 담아 집으로 와서 삼신 제왕상(床) 앞에서 빌고 나면, 시어머니가 산모를 엿드리게 하고 “애기 밥 많다”하면서 두 뒷병의 물을 산모의 양쪽 젖가슴 위에서 아래로 부으면 젖이 많이 난다. ③ 부연 막걸리를 먹거나 부연 뜨물을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
- 하문이 붓고 아플 때 : 싱싱한 담치를 삶아 그 물을 요강에 넣고 그 위에 수건을 깔고 앉아 김을 썩면 낫는다.
- 헛바늘이 돋았을 때 : ① 주걱 (그 현상은 헛바닥 같음)에 돌이 박힌 것을 칼로 긁는다. ② 밥주걱으로 헛바늘 난 부위를 대고 긁는다.
- 고기뼈(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 ① 고기 잡는 그물 줄을 목에 건다. ② 말린 연가시를 태워 가루를 만들어 가시가 걸린 목구멍에 붙여 넣는다. ③ 그물 줄을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먹는다.
- 물을 먹고 체했을 때 : 미꾸라지를 산 채로 삼킨다.
- 어린애 배에 자래가 생겨 거품똥을 쌀 때 : 자래를 거꾸로 들어 그 목을 잘라 피를 먹이고, 나머지 부분을 삶아 먹인다.
- 산후에 젖이 잘 나지 않을 때 : 흰 밥물을 먹는다.

- **짜불알일 때** : 검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 부엌의 앞에 달아놓고 물동이에 물을 이고 들어갈 때마다 한번씩 담그는데, 그 소금이 다 녹아 없어지면 짜불알도 정상이 된다.
- **아기를 순산하게 할 때** : ① 남편이 산부의 허리를 타넘는다. ② 농문을 열어 놓고 빈다. ③ 흰죽을 끓여 먹이고 굴뚝에 연기가 잘 나가도록 키질을 한다. ④ 애기 잘 낳는 여자가 임부의 배 위를 넘는다. (이것은 유사주술과 감염주술에 해당)
- **임부가 난산일 때** : ① 생달걀을 먹는다. ② 애기 잘 낳는 여자가 임부의 배를 왼쪽으로 세 번 타고 넘는다. (이것은 유사주술과 감염주술에 해당)
- **산후에 나쁜 피가 배에 남아 아플 때** : 빨래 방망이를 삶아 그 물을 먹는다. (빨래 방망이는 더럽고 나쁜 것을 씻어 없애기 때문)

#### 7) 동태복수법

동태복수법이란 유사주법과 비슷하나 이는 상처를 준 물체에 대해 상처를 주면 낫는다고 사고한 데서 나온 치료법이다. 마치 어린아이 가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그 부모가 그 물체를 때리며 어린 아이를 달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 **소 등 가축에게 발등이 밟혔을 때** : 발등 밟은 가축의 발을 도로 밟으면 낫는다.
- **고양이에게 물렸을 때** : 문 고양이의 털을 베어 태워서 그 재를 참기름에 섞어 물린 부위에 바른다.
- **개에게 물렸을 때** : 문 개의 털을 베어 태워서 그 재를 참기름에 섞어 물린 부위에 바른다.

#### 8) 기타

다음의 민간요법은 주술요법이되, 그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는 요법



이다.

- 수족에 정(맑은 물)이 솟았을 때 : 솔바닥의 그을음을 실 펜 바늘에 묻혀 솟은 정위에 十字로 긋는다.
- 고기뼈(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 그릇에 물을 떠 와 그 위에 十字를 긋고 마신다.
- 딸꾹질이 계속 날 때 : 물을 떠 온 그릇 위에다가 젓가락으로 十字를 긋고 그 각 부분(네 부분)을 숨을 쉬지 않고 마신다.
- 가래뿔이 섰을 때 : 가래뿔에 살모사 꼬리의 침으로 十字를 그으면 삭는다.
- 어린애가 밤에 대변을 자주 할 때 : 호박 꼭지를 어린애의 옷고름에 달아준다.
- 산모의 젖이 땀땀하고 아플 때 : ① 쌍둥이를 낳은 여인이 주무른다. ② 변소에 가서 주무른다. ③ 남편이 젓꼭지를 빨다.
- 목젖이 내렸을 때 : ① 해가 뜰 때 동쪽을 보고 서서 “목젖 거두자”하면서 양쪽 귀를 위로 세 번 들어 올린다. ② 해뜨기 전에 해 뜨는 쪽을 향해 서서 성(姓)과 나이를 말하고 나서 목을 자꾸 쓸어 올린다.
- 어린 아이가 잘 때 이를 갈면 : ① 결혼때 대례상에 엎어 놓았던 쌀을 변소에가 앉아서 먹게 한다. ② 짚을 끈 것을 이에 물리고 변소에 데리고 가서 앉혔다가 데려온다.
- 변비가 생겼을 때 : 삼년 묵은 간장을 항문에 바른다.
- 아이를 낳고 태가 나오지 않을 때 : 비로 산부의 배를 쓴다.

#### 4. 침구·한증요법

침구·한증요법은 질병이 생겼을 때 침을 놓거나 쑤스로 뜨거나 찜

질하는 방법이다.

- 치질이 생겼을 때 : ① 호박을 삶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옷을 깔고는 찜질한다. ② 해나무 삶은 물에 찜질한다. ③ 뽕나무 삶은 물에 찜질한다.
- 독사에게 물렸을 때 : ① 고사리대를 삶아 그 물로 찜질한다. ② 물에 담배를 넣어 끓여 그 물로 물린 부위를 찜질한다.
- 생니 앓이를 할 때 : 도꼬마리를 삶은 물에 찜질한다.
- 코피가 계속 날 때 : 간장을 끓여 찜질한다.
- 채독이 걸렸을 때 : 뇨소 물에 찜질한다.
- 무좀이 생겼을 때 : 식초를 탄 물로 찜질을 한다.
- 힘줄이 상했을 때 : 따뜻한 물로 찜질한다.
-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 명태 대가리를 삶아서 그 물을 요강에 붓고 검은 형겔을 덮은 뒤 그 위에 귀를 대어 찜질한다.
- 증풍으로 입이 돌아갈 때 : 침을 맞는다.
- 손목이나 발목을 삐었을 때 : 침을 맞는다.
- 못에 찔렸을 때 : 쑥으로 뜬다.
- 발찌가 났을 때 : 쑥으로 닦는다.

위의 가덕도 민간요법의 여러 치료법을 통계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치 료 방 법	약물 요법	물리 요법	주 술 요 법								침 구 · 한증요법
			적	공	의	전	차	유사 주법	동태 복수	기	
질 병 수	115	29	대	대	타	이	단	11	3	10	12
			18	5	41	6	5				

위의 통계수치를 보면, 약물요법이 45%, 주술요법이 39%, 물리요법이

11%, 침구·한증요법이 5%이다.

약물요법·물리요법·침구한증요법을 한방의료법이라고 하였을 때 그 요법이 61%인 데 대하여 민간전승의 주술요법이 39%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술요법 가운데 역신에 대한 공대법은 5%에 불과하고, 역신을 적대시하여 위하(威嚇)·공격 등으로 맞서 싸워 퇴치하는 적대법(18%), 다른 힘을 빌어 역신을 퇴치하는 의타법(41%),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일으킨다는 유사연상요법(11%), 그리고 동태복수요법(3%)등의 적극적인 역신 퇴치의 주술요법이 73% (만일 의타법을 제외하면 32%)이나 차지함을 보아 가덕도의 기충민은 자연을 극복하는 정신(질병을 퇴치하는 정신자세)이 바다의 사나운 파도를 헤치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정신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즉 가덕도의 민간요법에는 이 섬에 살고 있는 기충민의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이며 투쟁적인 자연 극복의 정신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 자료 제보자

- 천성마을 : 이차옥(여. 54. 국졸)·박연이(여. 67. 무학)  
 윤경애(여. 58. 국졸)·강임화(여. 70. 무학)  
 동선마을 : 조정원(여. 67. 무학)·이명순(여. 65. 무학)  
 권덕성(여. 65. 국졸)·김석만(남. 79. 국졸)  
 김찬이(여. 80. 무학)  
 항월마을 : 고준용(남. 56. 중졸)·이상선(여. 68. 무학)  
 김복덕(여. 74. 무학)·배춘련(여. 80. 무학)  
 조정분(여. 74. 무학)·박말순(여. 72. 무학)  
 대항마을 : 김정분(여. 70. 무학)·이정열(여. 70. 무학)  
 김익순(여. 70. 무학)·박갑연(여. 79. 무학)  
 허명선(여. 77. 무학)

## 〈부 록〉

- 본처가 첩을 땔 때 : ① 본처가 암여우의 생식기를 지낸다. ② 첩의 속곳을 몰래 베어 불에 태워서 그 재를 국물이나 술에 타서 남편이 모르게 남편을 먹인다. ③ 본처가 첩을 만날 때 본처가 모른 채하고 첩이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는다. ④ 남편의 신과 첩의 신을 도끼로 찍어 수체에 묻는다. ⑤ 동짓달에 나는 해삼을 삶아 남편을 먹인다. ⑥ 소의 침을 받아 남편 잘 먹는 음식물에 넣어 남편을 먹인다. ⑦ 까만 암소의 음모를 잘라와 불에 태워 그 재를 남편밥에 넣어 먹인다. ⑧ 사모를 세 번 쓴 집의 된장을 몰래 훔쳐와 남편을 먹인다. ⑨ 첩의 집에 가서 두말없이 첩의 요강을 깬다. ⑩ 첩의 속곳을 몰래 가져와 속곳의 밑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낸다. ⑪ 첩의 속곳을 가져와 속곳 중간을 베어 태워 몰래 남편을 먹인다.
- 도둑 맞은 물건을 찾을 때 : ① 고양이와 상여 맨 줄을 가져와 술에 넣고 불을 때면 고양이가 술을 뚝쳐 나와 도둑질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핏킨다. ② 상여 맨 줄을 벽수에 걸어 놓고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때면 도둑의 몸이 상한다. ③ 참새를 잡아 집기둥에 매달아 놓고 송곳으로 새의 눈을 찢러 놓으면 도둑의 눈이 튀어나온다. ④ 도둑질한 사람을 대강 알 때, 고양이를 잡아 술에 넣고 불을 때면 고양이가 죽는다고 날 떨 때 고양이에게 ‘도둑놈한테 가서 표시하라’하고 놓아 주면 고양이가 도둑놈한테 가서 표시를 한다. ⑤ 고양이를 잡아 술에 넣고 죽을 만큼 삶아서 꼬집어 내 놓으면 그 고양이가 뛰어가 죽은 집이 곧 도둑놈 집이다. ⑥ 참새를 잡아 눈을 바늘로 찢러 날려 보내면 날아가던 참새가 떨어져 죽는 집이 도둑놈 집이다.